

알립니다

2012 강원경제인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경제전문가·명사 초청 특강 비전 제시
강원경제인상 시상·친선골프대회 개최

강원도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도내 경제인들을 모십니다.

창간 67주년을 맞은 강원일보는 하이원리조트와 공동으로 9월13일부터 이틀간 하이원호텔 컨퍼런스 홀에서 '2012 강원경제인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유명 경제전문가와 다양한 분야의 명사가 참석해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강원경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 6회 강원경제인상 시상식도 거행됩니다. 강원경제인



◇윤상직 차관 ◇김상표 부지사 ◇양준혁 대표

상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수상 업체를 선발, 국내 최대 규모인 총 1억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인과 경제 유관기관,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참여와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13일(오후 2시~ 8시)

◇개회식 및 강원경제인상 시상식

△시상부분

- 강원경제인대상=트로피 및 상금 5,000만원
 - 강원신기술인상=상패 및 상금 2,000만원
 - 강원건설인상=상패 및 상금 2,000만원
 - 특별상(2명)=상패 및 상금 각각 1,000만원
- ◇기조강연=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

◇특별강연=양준혁 JH스पोर्ट테인먼트 대표
(전 프로야구 선수)

■ 14일(오전 6시30분~ 오후 2시)

◇조찬강연(오전 8시)=김상표 도경제부지사

◇강원경제인 친선골프대회

△티오프: 오전 6시30분

△장 소: 하이원CC

◇참가신청: 강원일보사 홈페이지(www.kwnews.c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문의: 강원일보사 경제부(258-1341~3)

||||| 주 최: 강원일보사·하이원리조트

||||| 후 원: 강원도·정신군·강원지방중소기업청

社 說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특위’ 구성해야 한다

도의회가 지난 3일 제2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설악산 오색도르프웨이 설치 등 3대 현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사업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위 구성결의안’도 심의한다. 정부가 경제성이 낮을 경우 이 철도 예산 50억 원을 불용 처리하겠다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문제는 특위가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는나이다. 정부에 건의서 정도를 보내는 고답적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구성을 안하느니만 못하다. 여기에다 특위는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비용편익이 0.39로 경제성이 전혀 없음에도 착공된 호남고속철도와 같은 차원에서 건설돼야 한다.

더욱이 동서고속화철도의 비용편익은 0.67로 호남고속철도에 비하면 훨씬 높다. 비용편익이 낮아서 안 된다는 논리는 호남

고속철도로 인해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또 선진국에서는 국가 기간 교통망을 건설할 때 타당성 조사는 하지 않는다. 도의회 특위가 시대 정황들을 잘 파악하고 정교한 논리로 무장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즉, 최근 활동해온 주변국은 광역두만강계획(GTI)을 통한 국외 추구를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투자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장지투(창춘~지린~두만강) 개방선도구사업, 러시아는 핫산~나진을 연결하는 철도 현대화사업, 일본은 동북아 국제항로 활성화를 통한 교역 확대, 북한은 나진·선봉지구 특별시 지정을 통해 두만강 지역의 무한한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두만강 지역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산자원 등 천연 자원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두만강 지역의 전문학적 개발이 익과 물동량 소화를 위해 속초지역을 GTI와 연계해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읽어야 한다. 도의회 특위가 확실한 활동 계획 등 준비 없이 일시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만들어지는 조직이 돼서는 곤란하다.

도내 조달사업 연간 목표 78.7% 달성

지난달 말까지 도내 조달사업 집행액이 연간 목표의 78.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원지방조달청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도내 조달사업 실적은 총 9,282억원으로 연간 집행목표인 1조1,081억원의 78.7%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8,375억원)에 비해 10.8% 상승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물품구매가 13.5%, 시설공사가 4.8%씩 올랐다. 또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8,00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1%, 여성기업 지원실적은 586억원으로 25.1% 증가했다.

특히 도내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실

적은 분리발주,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의 적극 활용으로 연간 목표 9,691억원의 83.3%에 해당하는 8,074억원을 집행해 지난해 대비 11.1%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지방조달청은 앞으로도 도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전국 또는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광성 강원지방조달청장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기침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실적이 정상궤도를 유지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히우윤기자 faw4939@kwnews.co.kr

건설경기 지표 하락세... 침체 가속

건축착공면적 감소폭 확대·발주액 증가율도 뒷걸음

도내 건설경기과 관련된 각종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극심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4일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도내 2분기 건설활동의 지표인 건축착공면적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건설발주액이 감소로 전환되는 등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건축착공면적 증가율은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올 1분기 3.8% 감소한데 이어 2분기에는 26.0%로 툭 떨어져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건설발주액 증가율도 1분기 202.3%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

했다가 2분기에는 25.0%로 큰 폭의 감소로 전환됐다. 다만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1분기 7.1%감소에서 2분기 36.5% 증가로 돌아섰다.

도내 건설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도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다.

BSI가 100을 넘으면 기업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개선된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지난 해 2분기 53, 3분기 61을 기록했던 건설업 업황BSI는 올 들어 1분기 41까지 떨어진 뒤 2분기에도 50을 기록하는 등 50 초반에서 좀처럼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7월 들어서도 도내 건설발주액은 전국적인 증가세와 달리 공공부문의 수주물량이 큰 폭(-70.1%)으로 줄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7월 중 도내 건설 수주액은 공공부문 1236억원, 민간부문 1391억원을 포함해 26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나 줄었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8월 건설업 BSI는 52로 전달보다 3p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09년 2월 51을 기록

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건설업계의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의 지구노력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말 현재 미분양주택 수도 3086가구로 전분기 2567가구보다 늘었다.

7월 들어서도 도내 미분양주택 물량은 3244가구로 전월(3086가구)보다 5.1% 증가했다. 이는 지난 6월(9.9%)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공사가 급감한 데다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등 내수부진으로 건설업계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더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박현철

도내 조달사업 실적 상승세

모두 9282억 집행... 중소기업 지원 증가

도내 조달사업 실적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보다 상승세를 타고 있다.

4일 강원지방조달청(청장 김광성)에 따르면 8월 말까지 도내 조달사업실적 분석 결과 총 9282억원을 집행, 연간 집행목표인 1조 1801억원의 78.7%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실적인 8375억 보다 10.8% 상승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는 물품구매가 66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17억원보다 13.5% 상승했고 시설공사가 2680억원으로 전년 동기 2558억원에 비해 4.8% 올랐다.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80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여성기업 지원실적은 586억원으로 25.1% 상승했다. 또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은 분리발주,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을 적극 적용하면서 연간목표 9691억원의 83.3%에 해당

하는 8074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71억원 보다 11.1% 향상된 실적이다. 박현철